

Yeosu Web Contents

2024년 05월 03일 13시 59분



목차

목차	2
보도자료 - 문화예술	3
98년 만에 대한제국 고종황제 장증손 이준 황손, 여수 삼항묘 참반	3

보도자료

해명자료

98년 만에 대한제국 고종황제 장증손 이준 황손, 여수 삼황묘 참반

2024.04.17 조회수 68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엄옥순 연락처 061-659-4740

국내 유일의 태조, 고종, 순종 3황제를 모신 여수 삼황묘에 황실 직계 후손 참반

여수삼황묘보존회가 주최하고, 여수항교가 주관하며 여수시가 후원하는 삼황묘 기 신제향이 15일 10시, 오전 중에도 200여명의 참반객들이 모여 성황을 이루었다.

여수 삼황묘는 태조 고향제, 고종 태향제, 순종 효향제 세 분을 모신 국내 유일의 황실 사당으로 1926년 순종 효향제의 인산일에 참가한 여수 지역 유림대표 정영민, 최석주, 최봉삼이 1927년 민족정신을 복돋우기 위해 여수시 고락산 기슭에 창건했다.

그러나 1939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고, 정영민 등 창건자 3명은 투옥되었다. 1947년 복설 되었고, 2006년 삼황묘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충민사(사적 제381호) 앞의 현 위치(여수시 덕충동)로 옮겨 세워졌다.

묘실은 정면3칸, 측면 2칸 규모의 팔작지붕 집이며, 경내에 창건 당시의 사적을 기록한 삼황묘 창건사적비, 삼황묘 중수비, 삼황묘 이전사적비 등의 비석이 있다.

해방 후에 여수유림이 주도하고 발족한 삼황묘보존회가 주관해 해마다 음력 3월 12일 향사를 올리고 있다가 올해 2024년 순종 효향제 흥서 98년째 되는 해에 태조의 직계후손이자 고종의 장증손자, 순종의 장조카손주인 이준 황손이 직접 삼황묘를 참반했다.

고종황제의 둘째 황자이자 독립운동가 의친왕 이강의 장손자인 이준 황손은

“전국에 이렇게 민족정신 고취를 위해 일제 강점기에 곳곳하게 태조, 고종, 순종 할 아버지를 모시고 기신제향을 올리는 곳은 오로지 여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저희 황실 후손들도 모르고 있는 사이 백여년 가깝게 여수에서 세 분 황제를 모셔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수는 비단 아름다운 바닷가 도시일 뿐만이 아니라 충절과 신의에 서도 으뜸가는 고장인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황실 직계후손들이 매 제향때마다 다 참석해서 여수의 유림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여수 삼황묘보존회 정준호 이사장은 “1926년 나랏님인 순종황제께서 흥서하시자 여수 유림 200여명은 인산일에 맞춰 서울로 상경하려 했으나 당시 일제 치하의 여수경찰서에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야음을 타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상경하여 나랏님의 가시는 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여수로 돌아와 민족정신의 고취를 위하여 태조, 고종, 순종 3분의 황제를 모시는 삼황묘 사당을 건립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처럼 98년만에 대한제국 황실의 직계 후손이 참반을 해주셔서 큰 영 광입니다.” 라고 했다.

- 2 -

대한제국 고종황제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첫째가 순종황제, 둘째가 의친왕, 셋째가 영친왕, 넷째가 덕혜옹주이며 이 중 12남 9녀를 둔 둘째 의친왕 외에는 모두 후사가 끊겨서 의친왕계만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의 법통을 잇는 유일한 가문이다. 의친왕의 10번째 아들인 이석 황손이 대표곡 ‘비둘기집’을 부른 ‘노래하는 황손’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준 황손은 (<http://www.yeosu.go.kr>)

의친왕의 장손으로 현재 의친왕의 황실 독립운동을 선양하는 의친왕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 3 -

오늘 참석한 윤현궁 흥선대원군의 종손 이영주 의친왕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고종황제 등 황실이 무능하고 부패하여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친일식민사관 프레임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한제국 황실의 근대화노력과 개혁군주로서의 고종황제의 업적이 재조명되면서 역사 바로세우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한제국 황제를 모신 삼황묘는 최근 MZ 세대에 불고 있는 궁중문화 즐기기 바람에 발맞추어 여수시를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유산입니다. 당연히 저희 황실 직계후손들이 적극 참여하여 삼황묘의 창건 의의와 여수 사람들의 충절정신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여수 삼황묘 보존회는 현재 여수시가 후원해 매년 봄과 가을에 향사가 이루어지며, 앞으로 대한제국 황실후손단체의 친왕기념사업회가 협력해 황실문화 콘텐츠로 키워 여수시를 대표하는 관광유산자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www.yeosu.go.kr>)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3 여수 삼황묘 기신제향 직후 이준 황손과 제관들.jpg](#) (30 hit/ 536.2 KB) ↓

[미리보기](#)

[3-1 삼황묘 기신제향을 모시고 있는 대한제국 이준 황손.jpg](#) (31 hit/ 574.5 KB) ↓

[미리보기](#)

[3-2 삼황묘 기신제향에 참석 중인 대한제국 이준 황손.jpg](#) (32 hit/ 370.9 KB) ↓

[미리보기](#)



이전글 < 여수시, 임신 축하금 50만원 지급 | 다음글 > 여수시, 섬박람회 대비 음식·숙박업소 친절서비스...

COPYRIGHT © YEOSU-CITY. ALL RIGHTS RESERVED.

Yeosu Web Contents

